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인생60파워 정기예금 금리 5.11%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15/29℃ 목포 15/25℃ 여수 15/21℃

단기 4344년 (음력 4월 2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81호 1판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제자문위 심의…조선왕실 일기 '일성록'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과 조선후기 국왕의 동정이나 국정 운영사항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일성록(日省錄)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23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 10차 회의를 열어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ICA 회의 결과를 25일 공식 발표한다.

IAC의 등재 권고 결정이 나오면 사무총장이 통상 2~3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하게 되지만 유네스코에서는 IAC 등재 권고 결정이 나면 등재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IAC는 지난해 3월 관련 자료들이 제출된 이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등재 여건 등을 심사해왔다.

'5·18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는 정부기관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시민 성명서, 사진·필름, 피해자 병원 치료기록, 국회 자료, 국가 보상 자료, 미국 비밀해제문서 등 5·18 전개 과정과 흐름을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었다.

국내 일부 우익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으나, 김황식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이미 역사적 심판이 내려진 것인 만큼 그런(우익단체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IAC에 전달됐다.

IAC는 이와 함께 조선후기 국왕의 동정이나 국정의 제반 운영 사항을 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연대기인 일성록에 대해서도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

2건이 모두 등재되면 한국은 9개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2001년 승정원일기와 직지심체요절, 2007년 조선왕조 의궤와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에 이어 2009년에는 동의보감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전세계에서 83개국 193건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노조파업 및 직장폐쇄 일주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전격 투입된 2500여명의 경찰이 공장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기업 파업사태 공권력 투입 30분만에 종료

광주 기아차 조업중단 고비 넘겨

스포티지R 등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 중단 사태가 우려됐던 협력업체 유성기업의 파업이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기아차 광주공장이 조업 중단 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은 24일 오후 4시를 기해 노조원 500여명이 일주일째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31개 중대 25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전날 사측의 협조를 얻어 걷어낸 공장 철조망 15m와 이날 오후 걷어낸 철조망 10m 사이 통로를 통해 선발대를 공장안으로 진입시키며 노조원 연행작전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원 5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은 각각 정문과 후문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었으며, 제품창고 등 공장 안에서는 300여명의 노조원들이 연좌농성 중이었다. 공장 안으로 진입한 경찰은 30여분만에 연좌농성 중인 노조원 300여명을 연행했다.

다행히 노조원 연행과정에서 경찰과 노조 양측 모두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 경찰은 연행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주동자 등을 선별한 뒤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유성기업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정상 가동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가 국내 자동차 업계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빠르면 25일 오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일주일 동안 공장을 점거했던 노조원들이 기계를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2~3시간 가량 점검작업 후 이날 밤부터 공장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25일 오전 8시께면 산타페와 카니발에 사용되는 디젤 R엔진용 피스톤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은 "공장 가동을 위해 곧바로 기계 점검에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유성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 등 엔진 핵심부품 재고가 바닥나 26일부터는 하루 평균 스포티지R 800대, 봉고트럭 400대, 카렌스 100대 등 하루 2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다.

이달 말까지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현대·기아차에서만 4만8000여대의 생산 차질과 827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다. 5000여개의 협력업체들에게까지 합치면 총 2조300여억원의 피해가 우려됐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호남권유치委 과학벨트 재심사 청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위법·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이어 23일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청구 취지에서, 이번 입지선정은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지난 5월16일자 입지선정을 취소하고, 과학벨트 입지의 적법·타당한 선정을 위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이유로는 입지선정의 위법·부당성을 부각했으며,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와 입지선정의 실체적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90% 해제

5개구 217.41㎢ 31일부터 거래 가능…전남은 38.56㎢ 풀려

광주시내 5개구 217.41㎢가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제히 해제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42.53㎢의 90%에 해당한다. 전남에서는 38.56㎢이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해제구역은 동구 소태동 등 23.42㎢, 서구 매월동 등 11.01㎢, 남구 송하동 등 39.13㎢, 북구 각화동 등 43.91㎢, 광산구 송정동 등 99.94㎢ 등이다.

토지시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가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여건 변화로 일부 투기 우려가 줄어들고, 토지거래와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부동산경기와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하지만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 또는 가능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광주 면적 501.34㎢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에 불과한 25.12㎢만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31일부터 발효되며, 구체적인 필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2154㎢(국토면적의 2.1%)를 오는 31일부터 해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